

# 최신 ICT 이슈

## I. 인재 찾아 동부로 나서는 미국 기술기업들, 이미 높은 주거비 해결이 관건

2018년 말 구글, 아마존, 애플은 사업 거점 및 제2 본사를 뉴욕 등 미국 동부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다퉈 발표하였음. 거점 확장의 최우선 목적은 “인재 확보”로, 실리콘밸리에 이어 엔지니어 수가 두 번째로 많지만 인건비는 실리콘밸리의 85% 수준인 뉴욕시에는 아마존과 구글의 제2 본사가 들어설 전망. 그러나 실리콘밸리 인건비 상승의 원인이 주거비용의 급증 때문임을 감안할 때, 주거비가 이미 실리콘밸리의 1.4배인 뉴욕에 인근 지역 인재들까지 모여들지는 미지수

-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전통적 사업 거점인 서해안을 벗어나 미국 각지의 여러 도시에 비집고 들어가고 있음
  - ▶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기업 3사 모두 2018년 말에 기존 본사에 버금가는 규모의 새로운 사업 거점 및 제2 본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앞다퉈 발표
  - ▶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은 2018년 12월 뉴욕의 사무실을 대규모로 확장할 것이며, 뉴욕 중심부 맨해튼에서 여러 대형 오피스 빌딩을 임차하여 “구글 허드슨 스퀘어(Google Hudson Square)”라는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발표
  - ▶ 역시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애플도 2018년 12월 텍사스주 오스틴에 신사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신사옥 외에도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뉴욕, 중서부 콜로라도주 볼더에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
  - ▶ 애플은 기존 본사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이고와 컬버시티, 워싱턴 주 시애틀에도 새로운 사무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
  - ▶ 한편, 구글과 애플에 앞서 서해안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 역시 새로운 거점으로 제2 본사를 뉴욕시와 워싱턴 DC 근교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들 3사가 비슷한 시기에 사업 거점을 미국 동부와 중부에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에 이목이 집중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ICT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표 1] 아마존, 애플, 구글의 사업 거점 확장 계획

기업명	위치	면적(평방피트)	신규 고용	향후 인력운용	투자
아마존닷컴	뉴욕	400만	2만 5,000명	2만 5,000명	25억 달러
	버지니아 알링턴	400만	2만 5,000명	2만 5,000명	25억 달러
	테네시 내쉬빌	100만	5,000명	5,000명	2억 3,000만 달러
애플	텍사스 오스틴	580만	5,000명	1만 5,000명	10억 달러
구글	뉴욕	170만	7,000명	1만 4,000명	10억 달러

〈자료〉 IITP 정리

■ 세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계획을 발표한 곳은 아마존닷컴으로, 2017년부터 미국 동부 대도시 중에서 물색하던 “제2 본사(HQ2)”의 위치로 고심 끝에 두 곳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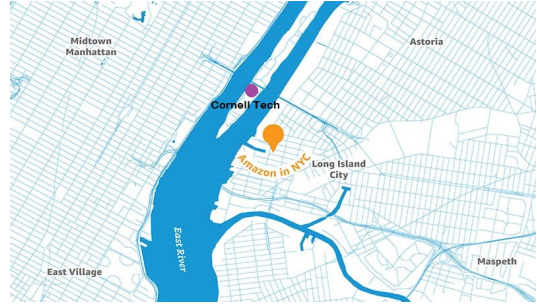
- ▶ 부지는 뉴욕시 퀸스 자치구의 롱아일랜드시티 지역과 워싱턴 DC에 가까운 버지니아 알링턴시의 내셔널랜딩 지역으로, 아마존은 두 거점에 각각 25억 달러를 들여 400만 평방피트(약 11만 2,400평)의 오피스를 짓고, 2만 5,000명씩의 신규 직원을 채용할 계획
- ▶ 당초 한 곳으로 예상되었던 제2 본사를 두 곳으로 나누게 된 결정적 이유는 우수 IT 인력이 많은 뉴욕 맨해튼과 워싱턴 DC 양쪽에서 모두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함
- ▶ 두 곳의 제2 본사와 함께 아마존은 테네시주 내쉬빌에도 2억 3,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새로운 물류 시설을 짓고, 5,000명을 신규 고용하여 2019년에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음
- ▶ 세 곳의 신규 거점 조성을 위한 투자액은 총 52억 3,000만 달러이고, 신규 고용 수는 도합 5만 5,000명인데, 아마존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규 채용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15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함

■ 아마존이 제2 본사 중 한 곳으로 선정한 롱아일랜드시티는 아마존이 “뉴욕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선정 이유는 광고 사업 확대에 분석되고 있음

- ▶ 롱아일랜드시티는 맨해튼 섬과 이스트 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으며, 이스트 강의 가운데에 있는 루즈벨트 섬에는 2017년에 설립된 컴퓨터과학 교육과 기업이 육성에 주력하는 대학원 대학인 코넬 테크(Cornell Tech)의 캠퍼스가 있음
- ▶ 뉴욕은 실리콘밸리나 같은 동부의 보스턴에 비해 우수한 이과대학이나 대학원이 적은 것이 약점이었으며, 이에 위기감을 느껴 뉴욕시가 유치한 것이 바로 코넬 테크임
- ▶ 코넬 테크는 코넬 대학과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Technion-Israel Institute of Technology)이 공동으로 설립한 것으로, 제2 본사 부지 바로 옆에 코넬 테크가 있다는 것은

디지털 인재 확보 면에서는 최적의 입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

- ▶ 아마존이 미국 광고 산업의 중심지인 뉴욕에 제2 본사 중 하나를 두려는 배경에는 광고 사업을 더욱 확장하려는 의도가 배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 아마존의 광고 사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 3분기 실적에서 광고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타 사업”의 매출은 24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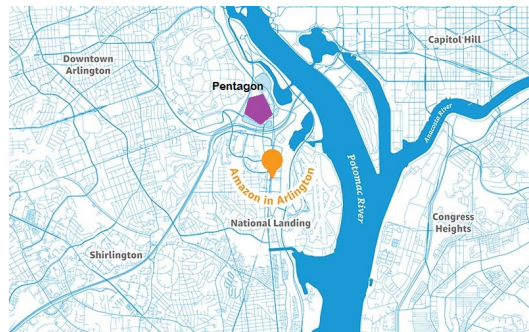


<자료> Amazon.com

[그림 1] 뉴욕의 아마존 제2 본사 예정지

■ 아마존의 또 다른 제2 본사가 들어설 내셔널랜딩은 워싱턴 DC에서 포토맥 강 맞은편, 미 국방부 건물인 펜타곤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정 이유 중 하나는 AWS 사업과 관련이 있음

- ▶ AWS(아마존웹서비스) 사업부문은 이미 2017년부터 제2의 사업 거점을 알링턴시의 서쪽에 이웃한 페어팩스 카운티에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 페어팩스 카운티에는 AWS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본부가 있는데,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는 AWS로서는 단골 고객과 가까운 곳에 오피스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음
- ▶ 국방부 역시 현재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전환 계획인 “JEDI(Joint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 제다이)”를 전개하고 있으며, 만일 미 정부 전체가 함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수백 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존이 알링턴에 2만 5,000명 규모의 제2 본사를 마련하려는 이유는 쉽게 납득이 가는 일



<자료> Amazon.com

[그림 2] 알링턴의 아마존 제2 본사 예정지

■ 아마존은 보도자료에서 제2 본사 입지를 선정하는데 보조금이 결정 요인 중 하나였음을 인정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준은 “우수한 인재의 확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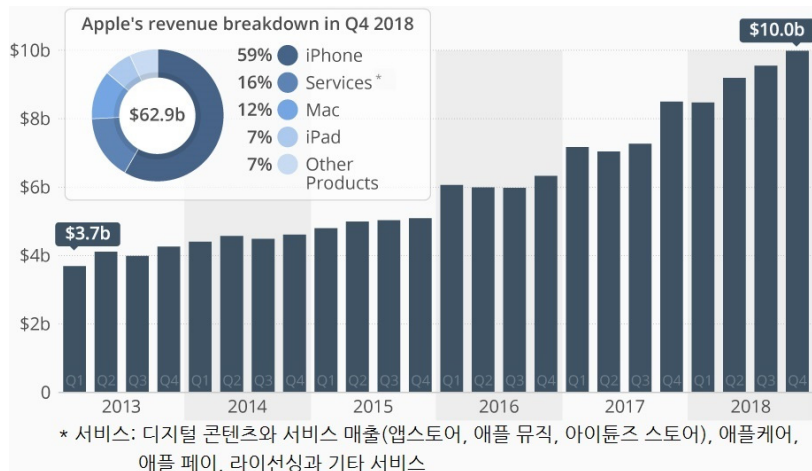
- ▶ 아마존은 제2 본사를 설치하는 대가로 뉴욕시로부터 15억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알링턴 시로부터는 5억 7,300만 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을 예정
  - ▶ 모두 실적(performance) 기반의 보조금으로 아마존이 실제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제2 본사 건설 투자 금액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20억 달러가 넘는 거액의 보조금이 아마존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임
  - ▶ 아마존은 보조금 지급도 입지 선정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는 85억 달러의 보조금을, 뉴저지주 뉴어크시는 70억 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음
  - ▶ 두 곳 모두 아마존 제2 사업 거점 마련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금액을 상회하는 보조금을 제시하였으나, 아마존은 그보다 훨씬 낮은 보조금을 제시한 뉴욕시와 알링턴시를 선택한 것
-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 선정의 기준으로 제시한 “우수 인재 확보”는 보다 자세히 풀어 쓰면 “사업 다양화를 위한 필요한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임**
- ▶ 인터넷 서점 사업에서 시작하여 20여 년이 지난 지금 아마존은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거인이 되었으며, AI 스피커를 비롯하여 스마트 가전 분야의 큰손이기도 함
  - ▶ 독자적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방대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상 작품의 제작·배포, 음악, 전자 책 등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
  - ▶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아마존이 사업 거점이나 인원의 규모를 현재의 두 배로 늘릴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임
  - ▶ 그러나 실업률 추이가 역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는 노동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이제는 소매, 자동차, 금융 등 모든 업종이 필요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및 AI(인공지능) 분야 엔지니어들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기술기업들이 집중 포진하고 있는 미국 서해안 지역의 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특히 심각한데, 이 때문에 기업들은 사업 거점을 서해안 이외 지역으로 확장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애플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사업 거점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거점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애플 거점 전략의 키워드는 ‘반도체’임**
- ▶ 오스틴의 사업 거점에서는 이미 6,200 명이 일하고 있어 현재 상태만으로도 캘리포니아 쿠퍼

티노에 있는 본사에 버금가는 규모라 할 수 있음

- ▶ 애플은 향후 오스틴 기지의 면적을 133에이커(약 16만 3,000평)로 확장하고 새로 5,000 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따라서 향후 오스틴에서 일하는 직원 수는 1만 1,000명을 웃돌게 되는데 사무실은 총 1만 5,0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확장할 방침
- ▶ 오스틴은 미국 반도체 산업 중심지 중 하나로, 인텔의 Atom(아툼) 프로세서와 IBM의 POWER(파워) 프로세서의 개발 거점이 있고, 삼성전자와 NXP의 생산 기지도 입주해 있음
- ▶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탑재되는 CPU인 'A 시리즈' 외에 GPU나 보안 칩도 자체 개발하고 있는 애플에게 오스틴에서의 채용 확대는 자연스러운 수순임
- ▶ 애플은 오스틴 거점의 확충과 동시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컬버시티,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도 각각 1,000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하였음
- ▶ 샌디에이고는 퀄컴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애플은 이미 이곳에서 모뎀 칩 개발자의 채용을 시작했는데, 어드렛 이제는 반도체 제조업체라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된 애플의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강화로 변화해 나가야 하는 애플도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우수 인재 확보가 당면 과제이며, 다양한 지역으로 거점을 확장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요구도 작용

- ▶ 아이폰이 기업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는 애플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라는 난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타개책으로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아이폰 사업과 시너



<자료> Statista

[그림 3] 2013~2018 애플의 서비스 사업부문 분기별 매출 추이

지를 창출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 ▶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애플 뮤직, 아이튠즈, 앱스토어, 아이튠즈 무비 등이 있으며, 2018년 4분기 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99억 8,100만 달러로 기록
- ▶ 애플의 2018 회계연도 전체 서비스 부문 매출액을 보아도 총 371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 신장하였으며, 분기와 연간 기록 모두 기업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 ▶ 서비스 부문의 매출은 이미 맥과 아이패드 매출을 상회하며 아이폰에 이은 2대 사업으로 성장했는데, 애플은 서비스 부문 매출을 2020년까지 5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등에서 인력을 늘려가고 있음

■ 한편, 실리콘밸리에 이어 뉴욕을 제2의 사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구글은, 사업 거점의 입지나 조성 목적으로 볼 때 아마존과 일대 격전이 불가피할 전망

- ▶ 현재 구글의 뉴욕 사무실 직원 수는 약 7,000명인데, 발표에 따르면 구글은 뉴욕 중심부 맨해튼에서 여러 대형 오피스 빌딩을 임차하여 새로운 캠퍼스를 설치하고, 뉴욕의 직원 수를 향후 10년 동안 현재의 2배 수준인 1만 4,000명으로 늘릴 계획임
- ▶ 구글은 뉴욕 거점을 영업 부문의 본거지로 삼을 계획인데, 뉴욕은 미국의 광고 산업의 중심지이고, 2018년 3분기 구글의 매출을 보면 광고가 86%를 차지하고 있음
- ▶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2위 페이스북과 3위 아마존이 계속 추격해 오고 있기에, 자율운전 등 시에 의한 인간 노동력의 대체를 지향하는 구글이지만 영업 직원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간다는 계획
- ▶ 광고 영업 강화 외에 구글의 뉴욕 거점 확충의 목적은 역시 개발력의 강화에 있는데, 구글은 뉴욕을 세계 최고 수준 인재들의 보고로 보고 있으며, 검색과 광고, 지도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기술 인프라, 연구 개발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뉴욕을 중심으로 확보한다는 전략
- ▶ 이런 점에서 보면 뉴욕에서 향후 아마존과 구글의 인재 획득 경쟁은 불가피한데, 앞서 아마존이 제2 본사를 롱아일랜드시티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바로 옆에 있는 코넬 테크에서 인재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 이 대학의 인재들은 구글이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었음
- ▶ 코넬 테크는 2012년 개교 때부터 캠퍼스가 완공된 2017년까지 구글의 뉴욕



<자료> CBSN

[그림 4] 구글 허드슨 스퀘어와 인접한 아마존 뉴욕

사무실을 빌려 강의를 진행한 만큼 구글과 관계가 깊는데, 여기에 아마존이 끼어든 형국이기 때문에 향후 양사의 인재 유치 경쟁은 과열 양상을 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기술기업들이 사업 거점을 확장한다는 소식에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미 주거비가 높은 곳이라 오히려 기업들의 인재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음**
  - ▶ 부동산정보업체 CBRE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지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2017년 평균 연봉은 130,894달러, 아마존 본사가 있는 시애틀은 128,030달러였으며, 실리콘밸리에 이어 엔지니어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뉴욕은 112,172달러, 오스틴은 101,150달러였음
  - ▶ 이런 면에서 기술기업들이 뉴욕과 오스틴을 주목하는 것은 타당한 전략이나, 한편에서는 미 동부에서도 실리콘밸리와 같은 원주민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 ▶ 또한, 기업들이 원하는 만큼의 인재를 채용하려면 뉴욕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인재들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평균 월세가 4,042달러로 이미 실리콘밸리의 2,892달러를 상회하는 뉴욕에 단지 높은 연봉만으로 엔지니어들을 불러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음
  - ▶ 이런 이슈들의 해결 여부가 동부 거점 확장 전략의 성패를 가를 수 있을 것인데, 최근 미국에서 전기항공기가 주목받는 것도, 거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인재들도 출퇴근이 가능하게 하여 주거비 상승 이슈 없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

#### [ 참고문헌 ]

- [1] National Real Estate Investor, "Tech Companies Head East in Quest for Talent," 2019. 1. 8.
- [2] The Real Deal Magazine, "Cornell Tech: NYC's HQ2 trump card," 2018. 12. 22.
- [3] Recode, "Amazon, Apple and others are expanding out of major tech cities," 2018. 12. 20.
- [4] Investor's Business Daily, "Tech Companies Are Moving East, But Don't Cry For Silicon Valley," 2018. 12. 17.